

# 융합적 장애학의 시각을 통해 본 중도 시각장애인의 장애 자부심 구축 -일본 TV드라마 "챌린지드"를 중심으로-

조원일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Construction of Disability Pride that People Having Acquired Visual Impairment Shown in the Japanese TV Drama "Challenged" -From the Viewpoint of Integrating Disability Studies-

Won-il Cho

Dept. of Social Welfare, Kyonggi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에서는 융합적 장애학의 시각에 근거해 중도 시각장애인의 장애 자부심 구축에 관해 일본 TV드라마 "챌린지드"를 중심으로 주인공 塙와 주변 인물로 나누어 그들의 장애관의 실체를 분석하였다. 이 경우, 연구방법론으로서 Priestley(1998)의 장애다중패러다임에 의거한 융합적 장애학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중도시각장애인의 장애 자부심 구축과 장애 수용의 패러다임은 근본적으로 상이하다. 그런 면에서 장애수용 이론에 대한 비판은 의료모델에 대한 비판과 통한다. 드라마상에서 장애 자부심의 본질이 가장 두드러진 인물로는 주인공 塙와 교사회장, 교장으로 이들은 사회적 관념론이 체화된 인물로서의 공통점을 보인다. 그 외 인물들의 경우, 초기에는 시각장애교사인 塙의 신체성과 장애 정체성을 부정하지만 이윽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관념론적 시각으로 전화하게 되며, 드라마의 인물들은 완전히 융화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드라마 자체에 관한 인문학적·사회과학적 분석이라는 내재적 시사과 더불어 드라마를 수단으로 한 교육적 효과와 같은 외재적 시사로 제시하였다.

**주제어** : 융합적 장애학, 중도 시각장애, 장애 자부심, 챌린지드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how disability pride of people having acquired visual impairment can be constructed. The theme is explored with the Japanese TV drama "Challenged". The paradigms regarding construction of disability pride and acceptance of disability are fundamentally different. In this context it can be said that a criticism of disability acceptance theory has something with a criticism of medical model of disability. It is main character Hanawa and chairman of teachers, and principal who were noticeable specifically at the point of forming disability pride, and these characters show a common feature that social idealism is embodied in their awareness. Other characters of the drama show a change of their consciousness to social idealism. As a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importances of humanistic and social scientific analysis as well as of educational effects achieved by means of drama.

**Key Words** : integrating disability studies, people having acquired visual impairment, disability pride, "Challenged"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2013-0165)

Received 20 November 2015, Revised 23 December 2015

Accepted 20 January 2016

Corresponding Author: Won-il, Cho

(Dept. of Social Welfare, Kyonggi University)

Email: tsukubacho@naver.com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1. 서론

사회적 소수자로 일컬어지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주변화된 계층으로 장애인을 들 수 있다. 장애인은 효율 중심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취약하며, 그 결과 정책 의제화의 대상화가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장애인을 유용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흔히 재활과 같은 유형의 사회서비스가 이뤄진다. 다양한 재활 영역 중 사회재활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장애인의 사회적응력을 높이는 것과 다른 하나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나가는 것이다.

복지현장에서 소위 장애인식개선사업이라고도 일컬어지는 사회재활사업의 일환으로 영상매체를 활용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문제는 이러한 매체가 장애와 장애인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기보다 구태의연하게 타인의 존자로서의 성격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영상물을 활용한 긍정적 장애관 형성은 장애모델로 보자면 사회모델적 시각에 의거한 것이며, 이 사회모델이 학문적으로 체계화된 형태를 장애학(disability studies)이라 할 수 있다.

장애학의 연구 접근법에는 사회과학적 접근법과 인문학적 접근법의 두 가지가 있다. 이들 두 접근법들은 장애학의 선진국에서는 아주 근접해져 있으며, 어느 한 쪽이 아닌 양시론적 접근의 필요성이 지적된다[1]. 이 양시론의 필요성은 연구방법론상의 이원론을 전제로 한 개별적 접근의 균형을 의미한다고 보인다. 하지만 융합적 접근을 통한 일원적 접근의 시도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 드라마 "챌린지드(チャレンジド)"를 대상으로 융합적 장애학의 시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 드라마는 新井淑則라는 실존 인물을 배경으로 NHK에서 2009년의 5부작에 이어 2011년에 속편 형식의 2부작으로 제작되었다. 이 드라마를 분석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주인공인 중도시각장애교사 塙의 장애 정체성과 그를 지지하는 이들과부터의 강렬한 장애 자부심을 엿볼 수 있어, 긍정적 장애관의 형성에 매우 효과적이라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드라마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로는, 横井(2010)에 의한 "NHK드라마 챌린지드에 의한 학생의 교사상에 관한 일고찰"이 유일할 뿐으로[2], 이마저 장애

코드가 아닌, 교육학적 측면에서의 분석에 치중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 TV드라마 "챌린지드"를 대상으로 한 내용분석을 도모하되, 융합적 장애학의 시각을 통해 중도시각장애인의 장애 자부심 구축에 관해 고찰해보으로써 긍정적 장애관 형성의 방향성 제시에 일조하고자 한다.

## 2. 장애 수용론과 장애 자부심 구축의

### 패러다임적 대처

#### 2.1 중도 시각장애인 장애 수용론

1950-60년대에 중도장애인의 심리적 문제와 회복에 대해 장애수용(acceptance of disability) 이론이 제창되었다. 일본에서는 1950년대 중반에 高瀬가 신체장애인의 심리적 문제에 착안해 '장애의 수용'개념을 소개한 것이 최초인 듯한데, 그 후 국립신체장애인센터그룹에 의해 수용이론, 단계이론이 도입되어 장애수용에 관한 연구가 조금씩 이뤄지게 되었다[3].

장애의 수용은 말 그대로 장애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 과정은 통상 다음의 5단계를 거친다. 1단계 쇼크기는 생물학적인 방위반응으로 무거운 병이나 사고를 입어도 머리로만 이해하지만 마음속은 의외로 평온하고 무관심한 시기이다. 2단계 부인기는, 장애가 그렇게 간단히 고쳐지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어 심리적 방위반응으로서 장애를 부정하게 된다. 3단계 혼란기에서는 심리적 공격성이 높아지며, 노여움이나 근거 없는 미움이 폭발하는 외향적 공격성과 자신을 책망하는 내향적 공격성을 보인다. 4단계 해결에의 노력기는 자립에의 욕구가 강하여 자신의 책임으로 어떻게든 해결해나가고자 하는 시기로, 가치관의 전환을 향한 노력의 시기이다. 5단계 수용기는 장애인으로서의 새로운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획득해나가는 시기이다[4].

중도시각장애인 또한 여타 장애와 마찬가지로 후천적 장애가 대부분으로 상기와 같은 장애수용의 일반적인 단계를 거친다고 볼 수 있다[5].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챌린지드"의 주인공 塙도 망막 색소변성증이라는 질환에 의해 실명을 갖게 된다. 이러한 질환은 돌발적인 사고와 달리, 점진적이며, 비교적 명확하게 실명의 도래시기를 예측할 수 있다. 그러기에 시

각장애인의 장애수용의 중요한 계기의 하나가, 증상의 자각과 이후의 실명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에 안과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실명고지가 된다. 그러나 통상 안과의나 재활지도원, 맹학교교사 등의 전문가 상호간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그 수행의 불일치로 시각장애인은 바람직한 고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원활한 장애수용과 이후의 재활과정이 곤란하게 된다[6].

위에서 살펴본 중도시각장애인의 장애수용에 있어 개인의 장애 극복이나 적응에의 요구, 그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전문가 역할은, 장애모델 중 의료모델(medical model)의 특성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런 면에서 장애수용 이론에 대한 비판은 곧 의료모델에 대한 비판과 맥을 같이 한다. 장애인 전체에 맞췄을 때, 꼭 이 이론이 적용된다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 이론은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의 이론으로, 현실에서는 장기에 걸쳐 쇼크 안에 처해 있는 사람의 존재를 설명할 수 없다[7].

## 2.2 장애 자부심 구축의 장애학적 의미

“챌린지드”의 주인공 塙는 실명 후 교사로의 복귀 의지를 굳건히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 같은 처지의 전국시각장애인교사회장(이하, 교사회장)으로부터 일깨우게 된 장애 자부심(disability pride)이다. 장애 자부심은 문맥에 따라 “disability culture”, “disability identity” 등으로 번역되는데, 일본에서 장애개성론이라고도 표현된다[8]. 장애 자부심의 핵심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 반드시 비극적이라던가 비참하지 않으며, 장애는 부끄러운 것도 숨겨져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다[9].

장애 자부심은 장애의 플러스적인 면을 보려는 것으로 장애를 마이너스적인 것으로 보고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의료모델과는 대조를 이룬다. 요컨대 장애 자부심은 장애학적 시좌와 정확히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볼 때 “챌린지드”의 주인공 塙가 중도시각장애인으로서의 삶 속에서 지향하고자 한 바의 실체 또한 장애학적 토양에 천착해 있음을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 3. 연구방법론으로서의 융합적 장애학

본 연구에서 의거하고자 하는 방법론의 선택 기준은 첫째, 장애의 속성에 관해 종래의 의료모델 vs. 사회모델

의 이분법적 발상을 넘어 장애의 복합성 이해에 일조할 것, 둘째,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장애이해를 위한 실천적 접근법으로서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융합을 도모할 것에 있다.

첫 번째 방법론은 Priestley(1998)에 의한 장애모델의 다중 패러다임을 의미한다[10]. 1982년 I. Zola 등에 의해 창시된 미국의 장애학은 이후 영국에서도 M. Oliver를 중심으로 크게 발전하였다. 그러나 같은 장애학이라 하더라도 미국 장애학이 오랜 세월을 걸쳐 문제시해온 사회적 장벽의 핵심은 영국 장애학이 지적인 물리적 장벽이나 사회구조상의 억압도 아닌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었다. 미국과 영국에서의 이러한 장애학의 배양과 전개상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의료모델은 개인의 문제, 사회모델은 사회의 문제라는 지극히 단순한 발상은 각 나라의 장애인 문제를 천편일률적으로 재단하는 것과 같다[11].

위와 같은 단순한 발상을 넘어 장애를 다면적으로 파악하는데 공헌을 한 것이 Priestley(1998)의 모델이다. 이는 개인을 뛰어 넘은 사회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명목론적 입장을 취하는 개별모델과 실제적인 사회가 존재한다는 실재론적 입장에서의 사회모델을 한 축으로 하고, 다른 축에는 생물학적 결정론에 바탕을 둔 유물론과 상징적 상호주의에 바탕을 둔 관념론을 배치하여 이들 두 축을 매트릭스로 제시한 것이다. 다만 이러한 사분위적 분류는 명확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Priestley(2003)에서는 몸, 정체성, 문화, 구조의 복합성으로 중첩시켜 제시하고 있다[12]. 본 연구에서도 주인공 塙가 철저히 사회모델적 시각만을 견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실명으로 인한 본인의 무능함에 좌절하는 등 다양한 장애관을 보이기도 한다. Priestley(1998)의 모델이 갖는 위와 같은 한계성 자각은 필요하지만 이 모델이 갖는 이론적 틀로서의 명확성은 그 유용성이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둘째,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융합적 접근에 관해서이다.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학제적 융합은 근래에 들어 개별 분야에서 그 필요성이 주장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융합의 형태를 명확히 제시한 연구물은 전무하다시피 하다. 이에 관해 본 연구에서는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학제적 결합의 키워드로 ‘faction’적 상상력을 들고자 한다.

그러면 faction적 상상력은 무엇이며, 그것이 본 연구 주제를 탐색함에 있어 왜 필요한가? faction이란 사실(fact)과 허구이야기(fiction)의 합성어로, 역사적 사실이 나 실존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작가의 상상력을 덧붙여 가상의 새로운 이야기로 재창조한 장르를 말한다 [13]. “챌린지드”는 실화에 바탕한 허구적 드라마이므로, “챌린지드” 또한 일종의 faction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만약 “챌린지드”의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를 통해 영향(감동이든 동정이든)을 받는다면, 그것은 이 드라마가 fact적 특성에 기반하면서 현실세계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fiction적 상상력에 기인한 것이 아닐까?

이 때의 상상력의 범위는 인문학적 측면에서의 개인 내 혹은 개인 간 인식이나 관계에 머물 수도 있고, 그 개인(들)을 둘러싼 사회과학적 측면에서의 체계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종종 장애를 다룸에 있어 이러한 faction적 특성이 장애 정체성을 부적으로 강화시켜 왔다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드라마의 전체 구성에서부터 등장인물의 세세한 대사에 이르기까지 현실 세계성(reality)을 바탕으로 인문학적 내지 사회과학적으로 이야기의 재구성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그렇게 해봄으로써 학문적으로는 장애학적 시각의 과급을, 실천적으로는 장애관련 영상매체를 다루는 작가나 제작자 등에 대한 장애 민감성을 높이는데 일조할 수 있으리라 본다.

## 4. 분석 결과

### 4.1 “챌린지드”의 의미와 드라마의 개요

드라마의 개요를 살펴보기에 앞서 드라마의 제목이기도 한 “챌린지드”에 관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장애인(障害者)”을 대체하고자 하는 의도로서 제안된 “(the) challenged”는 일본에서는 Prop Station이라는 사회복지법인에서 1995년부터 제창한 용어로, “도전이라는 사명이나 과제, 도전할 기회나 자격이 주어진 사람”을 뜻한다[14].

하지만 장애인 지칭 용어로서의 “챌린지드”라는 용어의 패러다임적 해석은 통일되어 있지 않다. 일본 후생노동성 “「장애」의 표기에 관한 작업팀”에서는 “챌린지드”를 포함해 장애인을 지칭하는 바람직한 용어에 관해

다양한 단체로부터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15].

먼저 Prop Station은 이 조사에서 “챌린지드”의 긍정적인 의미를 다시 한 번 표명하고 있다. Prop Station의 홈페이지에서는 “챌린지드”라는 용어를 제창하는 이유로 “우리는 약자에게 무엇인가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더 이상 약자가 안 되도록 해 가는 과정을 복지라고 부르고 싶다.”고 소개하고 있다. 약자에게 무엇인가를 해 준다는 발상은 보충적 복지개념의 전형으로, 사회적 약자로서의, 요보호자로서의 장애인으로부터 탈피하고자 함에 긍정적 장애인관의 구축 의도는 분명하다고 생각된다. 이는 전술한 사분위 장애모델 중 개별적 유물론적 발상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를 ‘복지’라는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사분위모델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모델과는 거리가 있으며, 이는 장애인복지와 장애학의 개념 구분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 보인다.

그 외 “챌린지드” 용어에 긍정적 의견으로 제일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는 “장애에 지는 일 없이, 사회 진출을 해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기존의 “障害者”를 대신하는 적극적인 용어로서 지지하고 있다.

한편 특정비영리활동법인 DPI 일본회의에서는 이 용어가 장애인이 직면하는 다양한 과제를 개개 장애자의 문제로서 각각이 도전해 나가는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의료모델을 전제로 한 인상이 강하며, 장애인만이 과제에 임해야 한다는 오해를 주는 호칭임과 더불어 장애인 권리 조약의 정의(사회 모델)에 명확히 반한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로부터 “챌린지드”라는 용어가 기존의 “장애인”이라는 용어에 비해 장애인의 능동적 사회역할을 이끌어내고자 함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장애학적 시각에 의하면 의료모델적 요소의 내포로 인한 비판의 여지는 명백하다.

이처럼 다양한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챌린지드”에 관해 이 드라마를 기획한 방송사의 의도는 어떠할까? NHK에 의하면 “교직에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고난을 극복하고 교단에 복귀하여 타고난 전향적 자세와 성실한 노력으로, 학생들에게 인간을 사랑하는 중요함을 가르쳐 가는 주인공과, 학생들과의 마음의 교류를 통해 현대 교육의 방향성과 의의를 묻는 드라마”로 소개하고 있다 [17]. 이 소개만 보자면 전술한 장애수용론에 따른 주인

공 개인의 장애 극복 논리가 중시되는 의료모델적 발상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챌린지드”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 드라마는 新井淑則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NHK에서 2009년 10월 10일부터 11월 7일까지 매주 토요일 1시간씩 총 5회에 걸쳐 방송되었다. 전편의 인기에 힘입어 2011년 5월 14일, 5월 21일에는 속편 “챌린지드-졸업”이 2회에 걸쳐 방송되었다[16]. 드라마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塙는 중학교 국어 교사로 근무 중, 망막색소변성증이라는 난치병으로 실명하여 교사직을 잃게 된다. 다시 강단에 서기 위해 필사적인 재활을 반복한 塙는 아내 幸江의 은사인 花村가 교장을 맡고 있는 静岡현 都丸중학교에 채용된다. 花村교장은 시각장애교사의 채용에 대한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지메나 학교폭력 등의 학교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선 ‘눈이 보인다’는 것은 오히려 선입견이 될 수도 있다면서 塙를 옹호하고, 塙는 이에 부응한다. 이런 塙에게 동료 교사들과 학생들이 처음에는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차츰 장애를 이해하고 서로 인격적으로 성숙되어 가면서 다양한 갈등관계가 중식된다.

## 4.2 챌린지드에 나타난 장애 자부심의 구축

### 4.2.1 주인공 塙의 장애관의 실체와 faction적 분석

이 드라마의 주인공 塙는 실명에 즈음해 중도시각장애인의 일반적인 현상을 겪는다. “선생님도 눈이 안보이게 됐을 때 똑같은 생각했어. 도움이 안되는게 아닐까, 주변에 꽤 끼치는 건 아닐까, 없는 편이 주변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을까..라고(제4화)”, “눈이 안 보이게 되고,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다(속편).”에서 장애 초기의 심리적 쇼크가 능히 짐작되며, 손상된 신체와 그로 인한 정체성의 부정과 같은 유물론적·관념론적 개별모델의 특성을 보인다. 이 드라마의 실제 인물인 新井도 실명 후 주위로부터 비웃음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자의식 과잉 상태의 경험을 이야기한다[18].

실명 초기의 이러한 반응을 보이게 된 중요한 계기로 의사에 의한 장애 고지 방식을 간과할 수 없다. 이에 관해 드라마상에서는 “이건.. 망막 색소변성증이네요. 안타깝게도 환자분의 경우는..(1화)”의 짧은 장면밖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통상 실명에 의한 중도장애 고지의 94.6%는 의사에 의한다. 하지만 의사는 환자의 병을 고치는 것

을 본래의 직무로 하는 전문직으로, 앞으로의 살아가는 방식에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게 된다. 그보다는 실명이라는 현재 상황에 관해 전달함이 중요하게 되어 위와 같은 동정적 위안자로서의 역할에 그치고 만다. 그 결과, 장애 당사자에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의 선택에 관한 정보가 결여된채, 의료직이나 재활 전문직에 의해 제공되는 종래와 같은 재활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만약 담당 의사가 의료 전문직으로서의 역할 한계를 인식하고, 사회복지 전문가를 소개하거나, 지역에서의 장애인자립생활을 지원하는 활동보조인제도 등에 관해 파악하고 있었다라면 장애인으로서의 이후의 삶의 모습은 훨씬 자연스러웠을지 모른다.

塙의 경우 실명 후 재활과정에서의 인도는 의료 전문직의 개입이 아닌, 부인 幸江의 격려에 의한 것이었다. 재활센터에서 塙는 시각장애인으로서의 삶을 위해 흰 지팡이를 활용한 보행 훈련이나 점자 학습 등의 재래식 훈련에 임한다. 또 장애인에게 디지털 정보의 활용이 중요한 정보화 시대에[19], 음성 재생 소프트 프로그램을 활용한 재활과정 등도 거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기초 과정 후, 재활전문가에 의해 제안되는 시각장애인 직업재활의 유형은 마사지사나 침구사 같은 시각장애 고유의 전통적 직종에 한정된다. “塙씨 생활훈련에도 익숙해지셨으니 다음은 직업훈련으로 들어가죠. 이 센터에선 마사지사나 침구사의 자격을 딸 수 있습니다(1화).”라는 센터 직원의 말에 塙는 아내에게 “물론 어느거든 소중한 일이라곤 알아. 그렇지만 난..(1화)”라고 하면서 주저한다.

이와 같은 전통적 직업재활의 발상은 그 자체로 개별적 관념론적 발상의 표출로, 이에 대한 塙의 반발은 중도 시각장애인으로서의 장애 자부심 발현에 중요한 계기가 된다. 즉 마사지사나 침구사같은 직업이 아닌, 교직이 본인의 천직임을 공고히 확인해 줌과 더불어 교직을 수행함에 있어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가 학생들을 피상적인 겉모습이 아닌 마음속으로 이해하게끔 해준 기폭제가 된 것이다.

교직 복귀에의 塙의 의지는 드라마가 방영된 당시의 일본 사회의 장애관에 비추어볼 때 매우 선진적 발상이었다고 판단된다. 단적인 예로 2013년 장애인기본법 개정 이전의 장애인의 개념이 “이 범률에서의 장애인이란

신체장애, 지적장애 또는 정신장애가 있어 계속적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자를 말한다.”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전형적인 의료모델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으로 교직에의 복귀라는 자기 실현을 장애수용단계의 완결로 보고, 이를 장애 자부심의 구축으로 보고자 하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장애 후, 수용까지의 일방향성의 선형적 단계는 장애 자부심 구축과정상의 역동성과는 거리가 있다고 보인다. 특히 중도시각장애인으로서 塙의 장애 자부심 발현에는 장애 당사자로서의 자기결정권과 자립 개념의 확장이 중요 요소로 작용하는 바, 이것이 전통적인 장애수용론과 결정적으로 차별화되는 부분이라 보인다.

먼저 장애당사자로서의 적극적인 자기결정권 행사의 단적인 예로, 재할 전문가에 의한 전통적인 직업군을 거부하고, 전국시각장애인교사모임이나 교육위원회를 찾아다니면서 교사 복귀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자기결정권 행사에는 아내와 都丸중학교 교장 花村의 굳건한 지지를 그 배경으로 한다.

다음으로 자립 개념의 문제로, 흔히 장애인복지분야에서의 자립이란 타인의 도움 없이 ADL의존을 최소화하거나 직업재활을 통한 납세자로서의 번도가 주로 의도된다. 하지만 이같은 자립 개념은 자본주의하 능력주의가 지향되는 사회에서의 협소한 자립 개념이다. 본래 자립이란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결핍되어 있는 욕구에 대해 스스로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 다양한 원조와 지원체계를 통한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실현되는 것으로, 장애유무를 떠나 사람들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일상적 행사 상태”를 의미한다[20]. 만일 塙의 자립관이 경제적 자활을 위주로 한 협소한 자립관에 머물러 있다면, 그의 선택은 교직에의 복귀라는 험로가 아닌, 침구사나 마사지사같은 직업을 통해 처자식을 부양하기 위한 경제생활의 영위였을 것이다.

塙에게 위와 같은 확장된 자립 개념의 체화는 교사 복귀 후 자연스러운 교사 역할의 수행을 통해 잘 드러난다. 일례로 패닉증후군의 학생 奥寺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기 보다 “선생님 내일부터 열심히 안하려고. 지금의 자신을 인정하고 해 나가려고(1화).”라는 말로 용기를 북돋워주자, 반의 어떤 친구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본인의 증상을 얘기하지 못하던 奥寺가 “선생님 덕분에 또 다른 용기가

생겼어요(1화).”라고 하면서 급우들에게 당당하게 도움을 요청한다. 奥寺의 이런 용기는 교무실에서 동료 교사들에게 본인이 시각장애인이며, 따라서 모두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는 塙의 공언을 지켜본 후에 나온 것이다.

塙에 보이는 장애 자부심의 발현은 담임을 맡고 있는 반 학생의 가정 내 폭력이나 이지메 문제 등에 개입하면서 다시 한 번 증명된다. 가정 폭력의 가해자인 英彦 부친이 “이런 말 하기 싫었는데 눈도 안보이면서 보통 사람(普通の人間)처럼 하려고 하다니 당신이야말로 이기주의자요(3화).”라고 하면서 塙의 가정 문제 간섭을 강하게 비판한다.

이에 塙는 “당신에게 있어서 ‘보통’이란 뭘죠?”라고 응대하면서 정상성의 본질을 되묻는다. 여기서 ‘정상’ 혹은 ‘보통’ 개념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적 고찰이 요구된다. 장애인복지에 있어 흔히 ‘정상’이란 비장애인의 상태를 의미하며, 정상화=장애인의 비장애인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정상’이니 ‘보통’이니 하는 개념은 그 사람에게 있어 편하면서 사용 빈도가 높은 ‘방법’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21]. 이에 따르면 보인다는 것을 ‘정상’ 내지 ‘보통’으로 보고,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을 ‘이상(異常)’으로서 문제시 하는 것은 편견에 불과한 것이다.

또 다른 예로 반의 여학생 坂本가 惠리를 이지메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해자인 坂本가 “답은 찾으신건가요? 우수한 자가 열등한 자를 배제하면 안되는 이유를(4화).”이라고 하면서 이지메를 정당화하려고 하자, 塙은 “우수하고 열등하고를 누가 정하는거니? 선생님에게 있어서 坂本도 惠리도 다른 아이들 모두 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야.”라고 타이른다.

이러한 ‘우수’ 내지 ‘열등’ 논의도 앞서 ‘정상’, ‘보통’ 논의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정상’, ‘보통’ 논의가 편의와 빈도에 따른 방법에 지나지 않은 것처럼, ‘우수’ 내지 ‘열등’ 또한 ‘정상’, ‘보통’의 양 극단에 놓이지언정 인간 삶의 다양한 영위 형태의 하나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시각장애라는 손상과 그에 대한 보완으로서 소위 ‘손상학’적 관점의 사례는 중도시각장애인의 장애 자부심 표출을 직접적으로 시사한다. Vygotsky의 손상학에서는 인간은 누구나 신체(생물)적으로, 정신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부족한 면(단점 혹은 결점, 즉 손상)이 있으며, 인간의 발달은 근본적으로 이러한 자신의 부족한

면을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주장한다[22].

드라마에서의 사례를 들자면, 都丸중학교 학생들의 수학여행에 수행교사로서 따라갈 수 없었던 塙은 유급휴가로 동행한다. 이 때 이지메를 당하고 있던 한 여학생이 깊은 산 속에서 자살하기 직전에 塙은 부담임과 함께 여학생을 구한다. 그러나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하산길을 찾지 못해 일행이 갈팡질팡하자, 塙은 “태양이 이쪽에 있다면 돌아가는 길은 이쪽일거야(4화).”라고 하면서 희미하게 남아 있는 광각에 의지한 채 모두를 안전하게 하산시킨다. 이로부터 시각장애가 반드시 부정 이미지의 형상화가 아닐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만이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가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드라마의 실제 주인공이기도 한 新井 또한 실명하기 전보다 사계의 변화를 훨씬 민감하게 느끼게 된 것 같다고 진술하면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97년에 영국 역사상 최초의 시각장애인 각료로서 교육부장관으로 취임한 David Blunkett의 사례를 들면서 밤에 불을 켜지 않고도 책을 읽을 수 있고, 원고를 보지 않고 청중을 바라보며 연설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만의 장점이라고 말한다[23]. 중도시각장애인에게 있어 위와 같은 신 경험은 실명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일로, 실로 시각장애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하며, 이는 장애모델 중 사회적 관념론적 시각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 4.2.2 주변인들의 장애관의 실체와 faction적 분석

##### 가. 가족

塙의 실명 후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은 부인 幸江였다. 幸江 역시 남편의 실명 직후 “여보 거짓말이지?”, “(실명의 눈으로 출근하려고 하자) 눈이 안보인다면 무리라는거 알잖아!(1화)” 등으로부터 남편 못지않은 심리적 충격을 받는다. 더불어 교사직 수행에 부응할 수 없는 손상된 신체에 낙담하는데, 이는 사분위 모델 중 개별적 유물론적 발상의 특징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幸江가 처음으로 도모해야 할 일은 재활센터에의 안내였으며, 이후에도 남편의 교직에의 복귀를 위한 전격적인 지지자가 된다. 여기에는 그녀만의 담담하면서도 위트 있는 전향적 성격도 일조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예를 들어 “(미소를 머금으면서) 숨기고 있는거 있으면 이혼할건데 괜찮으신지요?(1화)”라든가, “여기서 포기하

면 당신이 학생들에게 알려줘왔던 거 전부 거짓말이 되는데(1화)” 등을 들 수 있다. 이후, 幸江에게 더 이상 개별모델적 발상은 보이지 않으며, 곳곳하게 남편을 지지해나간다.

塙의 가족 구성원에는 6세 가량의 아들 大介도 있지만, 이 드라마에서 육아 문제 등은 거론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로 첫째, 본 드라마가 애당초 시각장애인 가족의 문제보다는 교육 현장에서의 고군분투와 거기에 따르는 감동을 그리고자 한 점과, 둘째, 塙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전향적 성향의 인물로 육아 문제를 크게 부각시킬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중도시각장애인 가정에 있어 육아문제는 가정의 위기와 함께 커다란 스트레스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24].

##### 나. 동료

塙가 교직에의 복귀를 꿈꾸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되는 인물로 “맹목의 쥬(盲目のジョ)”라 불리는 전국 시각장애인교사모임의 회장과 都丸중학교의 학교장 花村를 빼고 논할 수 없을 것이다.

먼저 이 드라마에서 누구보다 강렬한 시각장애 정체성을 보이는 것은 다름 아닌 교사회장이었다. 망막색소 변성증으로 실명한 塙은 끈기 있게 재활을 거쳐 교사로의 복귀를 준비한다. 그러던 중 전국에 본인과 같은 시각장애교사의 모임이 있음을 알게 되고, 조언을 얻고자 그 중심인물을 찾아가는데 그와의 첫 대면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엔진음이 안들리잖아. 1, 3이다. 1, 3이다. (주변 내기꾼들 모두 감사합니다. (중략) 핸디캡은 개성이 아니네. 새로운 힘이지. 나 여기(귀)가 좋아진 덕분에 너무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자연히 길이 열릴걸세(1화).

위의 진술문은 어느 경주용 모터보트대회에서 교사회장이 엔진소리만을 듣고 우승자를 점찍고, 그의 신통한 능력에 주변의 내기꾼들이 거듭 감사를 표하는 장면이다. 진술한 바와 같이 장애 정체성이 긍정적으로 강화될 때 장애 개성론으로 표출되기도 하는데, 교사회장은 이마저 거부하며 장애 자부심으로 초월한다. 교사회장은 塙가 시각장애로 인해 수학여행의 인솔교사로 동행하지 못할

때도 본인의 경험에 비추어 유급휴가의 아이디어를 낸다(4화). 드라마 속편에서는 塙의 부인 幸江가 수험공부에 도움을 주지 못함을 자책하는 남편을 격려하기 위해 교사회장을 선술집에 초대했는데, 이 때 塙에게 들려준 말이 “우리에게 누구에게도 없는 힘이 있다. 마음의 힘. 당신의 시력은 얼마야?”로 장애로 인해 낙담에 빠진 塙의 힘을 북돋워준다. 이에 塙는 학생 개개인의 적성에 따른 소위 ‘마음의 교과서’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일일이 나눠 줌으로써 학생들의 수험불안을 없애고 위로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교사회장의 경험 공유는 그야말로 장애인자립 생활의 핵심 기법 중의 하나인 동료상담(peer counseling)의 전형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장애를 가진 동료상담가가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장애인해, 법률적인 문제, 재정관리, 진로의 문제, 지역사회자원 활용 등 다양한 면에서 도움과 정보를 제공해 주어 심리적으로 상호 지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렇듯 교사회장은 塙에 대한 정신적 지지자로서, 선배교사로서의 경험을 전수하는데, 여기에는 교사회장의 남다른 장애 자부심의 건지가 자리잡고 있으며, 그는 누구보다도 강력한 사회적 관념론이 체화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 다. 교장

장애 당사자로서 교사회장만큼 강렬한 장애 자부심을 보이진 않지만 塙의 장애 정체성을 일깨우고, 교사에의 길을 다시 열어주는 결정적인 역할 수행자는 都丸중학교장 花村였다. 花村는 매우 진취적인 성향의 인물로 塙과 처음 대면할 때는 대형 오토바이에 가죽 잠바 차림이었다. 花村교장이 격없는 자신의 옷차림에 대해 塙에게 가벼운 사과를 할 때, 塙은 “애초에 눈이 안보여서 걸모습으로 판단하거나 하지 않아요(1화).”라고 하자, 花村교장은 “그런 사람이야말로 요즘 중학교에 필요한겁니다. 이 지메, 부모의 문제 등 보이지 않는 곳부터 해결해주셨으면 합니다.”라고 응대한다. 이로부터 花村교장의 교육자로서의 인간관에 장애 여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塙에 대해 동료교사들이 부정적 태도를 보이자 “이 안에서 눈이 안보이게 되어도 교직을 계속 해 나갈 생각이신 선생님 있습니까? 塙선생님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1화).”, 塙의 교직 계속을 반대하는 교육위원회 앞에서 “塙선생은 비장애인(健常者)이 갖고 있지 않은 마음의 눈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 것도 알려고 하지 않고, 눈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만 하다니, 당신들이 그러고도 교육에 몸담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속편)”라고 하면서 정안자들의 소극성을 책망함과 더불어 시각장애 교사로서의 塙의 능력을 높게 평가한다.

花村교장에게 보이는 진보적 성향은 광의의 자립관과 연결되어 塙의 교사직 수행에 적잖은 도움을 준다. 塙가 수업자료 제작에 동료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자, “그럼 봉사활동을 부탁하는건 어떠세요? 가까운 대학에 알아보는게 어떠세요? 의지할 수 있는 건 의지해 가면서 해 나갑시다(2화).”라고 하여 사회자원의 활용을 제안한다. 이는 사회복지사의 3대 역할 중의 하나인 자원의 중개(brokering)와 직결된다. 그 결과 인근대학의 학생으로부터 서포트를 받아가면서 문제를 해결해나간다.

그렇다고 花村교장이 무작정 塙를 지지하지는 것은 아니며, 시각장애인으로서의 능력과 교사로서의 책무성을 균형 있게 이끌어간다. 학부모 앞에서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공개수업을 훌륭히 수행한 塙에 대해 “기뻐하는건 아직 이릅니다. 좀 전에 수업 잘 봤습니다.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건 수업을 재밌어 한게 아닙니다. 선생의 존재가 신기하고 선생 자체가 재밌었던거겠죠(2화).”라고 하면서 학생들에 의한 자발적 배려의 실체를 간파하기도 한다.

그 외 塙와 그의 장애에 대한 학교 동료의 반응은 초기에는 대부분 부정적으로, 사분위 모델 중 개별적 유물론적 발상에 머물고 있다. “그런건 무리입니다. 애초에 어떻게 수업을 한다는겁니까? 눈이 안보이는 선생님이 지도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1화).”라는 강한 반감을 보인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동료로서 塙를 인정하지 않고, 시각장애의 특성에 대한 배려와는 동떨어진 것이었다.

단적인 예를 들자면, 시각장애인은 점자를 통해서만이 읽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목자자료를 점자나 음성으로 제작하여야 한다[25]. 그럼에도 교무회의에는 목자자료만 준비하여 塙에게 점자자료 등의 배려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한다. 심지어 塙의 부임 전에 담임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부담임 新谷선생의 경우, “눈이 안보인다고 해



서 특별 대우 받잖아요. 이런걸 역차별이라고 하지 않나요?(2화)”라고 한다.

新谷가 말한 특별 대우란 정당한 편의 제공(reasonable accommodation)개념의 재음을 필요로 한다. 정당한 편의 제공은 장애인차별을 금지하는 세계 각국의 법률에서도 핵심적인 개념이다. 동일하지 않은 것을 동일하게 대하는 것이야말로 차별의 또 다른 모습으로, 이 점에서 新谷에게는 장애인 차별에 관한 인식의 부재가 드러난다.

이런 그들도 점차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교사로서의 塙의 능력에 찬의를 보낸다. 예를 들어 塙과 업무상 관련이 많은 新谷의 경우, 塙가 학생들에게 시험 부정 행위방지를 부탁하는 장면에서 “그래, 나는 塙선생님의 눈이니까(2화).”, “계속 선생님 시샘했어요. 간단하게 담임되고, 간단하게 학생들 마음을 이끄시잖아요(2화).”라고 하는 등 인간으로서, 선배교사로서의 塙의 능력을 높게 평가하면서 塙와 완전히 융해되어간다. 新谷에게 보이는 이러한 변화의 기저에 개별모델로부터의 사회모델로의 장애인관의 변모가 전제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라. 기타: 학생, 학부모

학생들과 학부모의 塙에 대한 반응 또한 동료들의 초기 반응과 크게 다르지 않다. 塙가 안내견과 함께 都丸중학교에 부임해 첫인사를 나눌 때, “저 선생님 괜찮은거야? 담임 아니라서 다행이다(1화).”, “(수업 중 프린트물을 떨어뜨리자) 전혀 수업이 안 되잖아. 역시 눈 안보이면 무리라고(2화).”는 등의 개별적 유물론적 발상의 전형을 보인다. 앞서 언급한 우생사상에 젖어 급우를 이지메 하는 학생의 경우, 塙의 장애는 손상 그 자체일 뿐 塙의 장애 정체성에 대한 어떠한 존중도 보이지 않는다.

이같은 반응은 학부모에게도 마찬가지로, “英彦의 엄마입니다. 시각장애인의 정보량은 비장애인(健常者)의 20%라고 들었습니다. 아들을 맡기기에 충분치 않습니다(3화).”, “(英彦 부) 이런 말 하기 싫었는데 눈도 안보이면서 보통 사람처럼 하려고 하다니 당신이야말로 이기주의자요(3화).”에 잘 드러난다.

위와 같은 학부모의 반응은 특히 ‘건강지상주의(healthism)’의 특성을 여과없이 표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의 근저에는 비장애인들의 장애에 대한 공포나 혐오감이 있다.

그러한 감정이나 편견의 원인은 다수자인 비장애인의 ‘용모완벽주의’로서 설명되는데, 이 점이 건강지상주의 비판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26]. 이러한 건강지상주의 사회의 비판에 가장 설득력 있는 장애이론이 바로 사회모델로, 이에 따르면 장애 문제의 해결에는 그 사회의 전반적인 권위적 기제들에 대한 통렬한 변혁이 뒤따라야 함이 시사된다.

한편 塙에 부정적이었던 학생들도 점차 塙의 교사로서의 열정에 감복하면서 점차표시가 필요한 곳곳에 점자 스티커를 붙여두는 등 자발적인 배려를 보이기 시작한다. 드라마의 실제 주인공인 新井는 학생들이 몸에 익히게 되는 이러한 감정이 본인이 시각장애인 교사이기에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즉 시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교사에게, 학생들이 자신들의 말이나 반응이 얼마나 소중한 정보이며, 수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커다란 단서가 된다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선생님께 협조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보통 수업에서 발견되지 않는 감성을 닦게 된다는 것이다[27].

이러한 新井의 지적은 통합교육의 효과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비단 교육현장뿐만 아니라 비장애 사회의 일반가정 속에서도 충분히 통용된다. 드라마상에서도 종국에는 “저희들 塙선생님하고 달리고 싶어요. 앞으로도 계속(5화).”이라는 장면에서 암시되듯이 塙의 장애를 매개로 드라마 내 다양한 인간관계의 갈등은 불식된다. 이 지점에서 긍정적 장애인관의 형성을 통한 장애 문제 해결 경험의 의의가 확인된다. 즉 시각장애 고유의 정체성에 대한 존중이 막힌 소통관계 속 학생들의 의사표현력 증진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교육현장을 비롯한 제 사회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일본 TV드라마 “챌린지드”에 나타난 중도 시각장애인의 장애 자부심 구축에 관해 융합적 장애학의 시각에 근거해 고찰하고자 하였다.

장애 자부심이란 비단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모두에게 있어 장애인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자 하는 인식 변혁의 지향점이기도 하다. 이 경우, 본 연구에서는 사회과학적 혹은 인문학적 장애학의 일원론적 발상

이 아닌 융합적 분석을 통한 일원론적 접근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중도시각장애인의 장애 자부심 구축과 장애 수용은 얼핏 비슷하게도 보이나, 양자가 내포하는 패러다임은 근본적으로 상이하다. 장애 수용론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장애 극복 내지 적응을 요구하며, 그 과정에서의 전문가의 역할은 당사자 지향적이지 않다. 그런 면에서 장애수용 이론에 대한 비판은 의료모델에 대한 비판과 통한다. 반면 장애 자부심이란 장애의 플러스적인 면을 보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학적 시각과 맥을 같이 한다.

드라마상에서 위와 같은 장애 자부심의 본질이 가장 두드러진 인물은 주인공 塙와 교사회장, 교장이었다. 이들은 사회적 관념론이 체화된 인물로서의 공통점을 보인다. 塙의 경우 실명 초기에는 손상된 시각으로 인한 신체의 부정으로 특징지어지는 개별적 유물론적 발상을 잠시나마 보이긴 하나, 천직인 교사로서의 복귀를 통해 장애 자부심을 발현해 나간다. 교사회장의 경우, 이 드라마에서 가장 강력한 장애 자부심을 보이는데, 장애인으로서의, 선배교사로서의 교사회장의 지지는 매우 공고하다. 장애 당사자가 아닌 비장애인 학교장의 경우는 교사회장만큼은 아니더라도 塙에 대한 굳건한 버팀목이 된다.

그 외 인물들의 경우, 초기에는 시각장애교사인 塙의 신체성과 장애 정체성을 부정하지만 이윽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관념론적 시각으로 전화(轉化)하게 되며, 드라마의 인물들은 완전히 융화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한 시사점으로 무엇을 제시할 수 있는가? 간단히 말하자면, 이 드라마를 통해 중도 시각장애인의 삶과 그들의 긍정적 장애 정체성 구축에 관해 보고, 느끼고, 행동하게끔 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드라마 자체에 관한 인문학적·사회과학적 분석이라는 내재적 시사과 더불어 드라마를 수단으로 한 교육적 효과와 같은 외재적 시사로 나누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드라마의 내재적 시사로, 주인공 塙가 실명 이후에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들을 상기해보면, 가정 먼저 실명 고지 단계에 있어서의 안과외에 의한 일방적·개별적 유물론적인 정보 제공을 넘어 실명 이후의 다양한 삶을 전망한 초기 지원체제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재할 이후 다양한 직업재활 형태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한 바 [28], 여기에는 장애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의 의의와 자립

개념의 확장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塙가 교직에 복귀하면서 반 학생의 이지메나 가정폭력 등의 문제를 해결해나감에 있어 교사로서의 그의 적성이 작용했음은 물론이겠지만, 실명 후 시각장애인으로서의 경험이 위와 같은 문제 해결의 실마리로 작용한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볼 때 긍정적인 장애 정체성 나아가 장애 자부심의 구축이라는 장애 고유의 문제 해결 경험으로부터 비장애사회로 확대 적용하기 위한 시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드라마의 외재적 시사로, 긍정적 장애인식 형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능이다. '잘' 만들어진 드라마는 어떠한 전문가적 개입보다도 장애인 문제 해결에 있어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여기에 장애 정체성을 왜곡하는 드라마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와 긍정적 장애 정체성의 확대가 필요하며, 본 연구는 그러한 역할 수행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본다[29].

## REFERENCES

- [1] H. J Cho, "Doing disability studies in Korea", Hakjisa, 2013
- [2] K. Yokoi, "A Consideration of the teacher's image of students in the NHK Drama, 'Challenged'", CAMPANA, 17, pp.139-148. 2010
- [3] T. Omae, "Research on psychological changes and processes during rehabilitation of people with acquired visual impairment (2)", Annual reports of the Graduate School of Nara University, 14, p.28. 2009
- [4] S. Ueda, "Rehabilitation medicine illustrated(second edition)", Tokyo University Press, p.5, 1998
- [5] pfizer: <http://www.ntg40.jp/twenty//> 2015.11.20
- [6] K. Tatsumi, "A rehabilitation process of visually handicapped persons". Doctor's Thesis. Tsukuba University, 2003
- [7] T. Omae, "Research on psychological changes and processes during rehabilitation of people with acquired visual impairment (2)", Annual reports of the Graduate School of Nara University, 14, p.30. 2009

- [8] H. K, Chong, "Disability studies, formation and range of theory", 2010
- [9] M. Nakamura, A. Nimonji, E. Okada, "The ABC-CLIO Companion to the Disability Rights Movement". pp.115-116, Akasi Publication.
- [10] M. Priestley, "Constructions and creations: idealism, materialism, and disability theory". Disability and Society, Vol 13, No, 1, pp. 283-301, 1998
- [11] H. K, Chong, "Disability studies, formation and range of theory", pp. 13-22, 2007
- [12] M. Priestley, "Disability- A Life Course Approach", UK Cambridge: Policy Press, 2003
- [13] Doopedia: <http://www.doopedia.co.kr>, 2015.10.20
- [14] Prop station: <http://www.prop.or.jp/about/challenged.html>, 2015.10.25
- [15] Council of the disabled system revolution, "Issues on the term of disability". [http://www8.cao.go.jp/shougai/suishin/kaikaku/s\\_kaiji/k\\_26/pdf/s2.pdf](http://www8.cao.go.jp/shougai/suishin/kaikaku/s_kaiji/k_26/pdf/s2.pdf) 2015.10.05
- [16] wikipedia Japan: <http://ja.wikipedia.org/wiki>, 2015.09.05
- [17] NHK: <http://www6.nhk.or.jp/drama>, 2015.06.20
- [18] Y. S. Han, "Nalmada himang-Jeonmeng sonsen", Hansmedia, 2010
- [19] H. Kim, "An Improvement Policy of Digital Information Accessibility for Handicapped Person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1, No. 9, pp.181-188, 2013
- [20] W. I. Cho, "Rethinking policy orientation of education and welfare for disabled people from a disability studies perspective", Korean Council of Physical, Multiple & Health Disabilities, Vol.55, No.4, p. 130, 2012
- [21] H. K, Chong, "Disability studies, formation and range of theory", 2010
- [22] E. Cheong, "Exploring the suggestions that Vygotsky's study on 'Defectology' affects the education of disabled childre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Vol. 14, No.1, pp.59-76, 2007
- [23] Y. S. Han, "Nalmada himang-Jeonmeng sonsen", Hansmedia, 2010
- [24] K. Tatsumi, "A rehabilitation process of visually handicapped persons". Doctor's Thesis. Tsukuba University, 2003
- [25] J. Y. Jung, M. A, Lee, "Current Status of Digital Braille Music and Policy Proposal".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8, pp.51-57. 2015
- [26] H. K, Chong, "Disability studies, formation and range of theory", pp.117-118, 2010
- [27] Y. S. Han, "Nalmada himang-Jeonmeng sonsen", Hansmedia, 2010
- [28] K. Tatsumi, "A rehabilitation process of visually handicapped persons". Doctor's Thesis. Tsukuba University, 2003
- [29] W.I.Cho, "Views on Disabled People Shown at the Japanese Drama 'Kiminotega sasayaiteru'",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Vol. 14, No. 1, pp.4-5, 2012

#### 조 원 일(Cho, Won IL)



- 1995년 8월 : 고려대학교 일어일문학과(문학사)
- 2004년 4월 : 츠크바대학 심신장애학연구과(심신장애학)
- 2006년 3월 ~ 현재 : 경기대학교(사회복지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장애, 정책, 융복합
- E-Mail : tsukubacho@naver.com